



A

Y



연천 유엔군 화장터



- ▶ 연천 유엔군 화장장 시설은 한국전쟁 당시 서부전선 전투가 치열했던 1951~1952년 사이에 지어졌다.
- ▶ 한국전쟁 당시 유엔군 전사자들을 화장하기 위해 건립하여 휴전 직후까지도 사용한 화장 시설이다. 한국전쟁 유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을 뿐 아니라 유엔군 전사자들을 추모하는 시설로 가치가 있다.
- ▶ 전사자들을 본국으로 송환할 시간도 없이 전쟁터에서 급하게 화장해야만 했던 당시의 긴박한 상황을 보여준다.



DAY I

연천 유엔군 화장터

- ▶ 연천 유엔군 화장장 시설은 한국전쟁 당시 서부전선 전투가 치열했던 1951~1952년 사이에 지어졌다.
- ▶ 한국전쟁 당시 유엔군 전사자들을 화장하기 위해 건립하여 휴전 직후까지도 사용한 화장 시설이다. 한국전쟁 유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을 뿐 아니라 유엔군 전사자들을 추모하는 시설로 가치가 있다.
- ▶ 전사자들을 본국으로 송환할 시간도 없이 전쟁터에서 급하게 화장해야만 했던 당시의 긴박한 상황을 보여준다.



파주 설마리 추모공원

“경기도 파주에는 안양 관악산, 개성 송악산, 포천 운악산, 가평 화악산과 더불어 경기도악 중 하나로 불리는 감악산이 있습니다. 감악산 북쪽에는 임진강이 흐르고, 그 왼쪽에는 적성면 중심부를 지나 임진강과 이어지는 설마천이 흐르는데요. 설마천이 흐르는 계곡과 임진강 주변은 한국전쟁(6.25전쟁)때 대표적인 격전지 중 하나. 이곳에서 큰 희생을 치른 주인공은 국제연합군(유엔군)의 일원으로 참전한 영국군이었습니다.”

- ▶ 파주 설마리 추모공원은 영국군의 해외 참전 역사 중 손꼽히는 희생이자 투혼인 설마리 전투를 기리기 위해 세워진 공원이다.
- ▶ 이곳에서의 사흘간의 총격전 끝에 중공군의 남하를 저지해 서울을 수호할 수 있었다.

